

現代哲學의 志向 生에서 實存의 길을 檢討함 [제5회]

金午星

이러케 보면 實存哲學은 生의 哲學에 比하여 大端히 優越한 듯하다. 그러면 實存哲學은 정말 優越한 것인가? 이에 對한 解答은 實存哲學을 暫見한 뒤에 내리기로 하자.

四

生의 哲學이 生을 中心으로 世界(歷史的)를 解釋함과 같이 實存哲學은 實存을 中心으로 世界를 解釋하려 한다. 生과 實存은 한 가지로 人間存在를 意味한 것이나, 그러나 生의 앞에는 幾多의 矛盾과 困難이 重疊하더라도 그것을 突破하고 自己를 回復할 수 있는 希望과 期待가 있음에 反하여, 實存의 앞에는 그 自體로서는 이미 自己를 恢復할 수 없는 不安, 恐怖, 死, 虛無 등이 가로노혀 있는 것이다.

하이데켈[하이데거]의 實存哲學은 人間の 有限性에서 出發한다. 그는 人間の 有限性을 現存在라 하고, 現存在의 存在樣相을 實存이라고 하였다. 現存在로서의 人間은 그 有限性 때문에 항상 自己를 超越하여 無限에 나가려는 關心을 갖고 있다. 그러면 人間은 어째서 有限的이며 또 有限性을 超越하게 되는가?

하이데켈은 現存在로서의 人間存在를 세가지 契機에서 解釋한다. 事實性, 頽落, 實存이 그것이다. 事實性이란 주어진 “世界 속에 被投되어 있는 것”, 頽落이란 “存在者の 곁에 있는 것”, 즉 주어진 環境 속에서 그것과 交渉하며 그것에 配慮를 갖으며 거기에 不安을 느끼면서도 그 不安을 눈감고 있는 것이며, 實存이란 “自己에 先在한 것”, 즉 주어진 世界의 밖에 서 있는 가능성을 이룸이니 이것을 企投性이라 한다. 事實과 頽落이 現存在의 有限性이라면, 實存은 그 有限性의 超越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런데 實存의 有限性의 超越은 時間의 脫自的, 視野의 構造에 依해서만

可能하다. 時間은 既存의, 現在의, 將來란 統一 現象이다. 이제 이 時間의 構造를 現存在의 세 가지 契機에 關聯시키면, 既存는 事實性を 可能케 하고, 現在는 頽落을, 將來는 實存을 可能케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時間性은 事實, 頽落, 實存의 統一을 可能케 하며, 現存在의 關心의 構造를 全體的, 根源的으로 構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現存在의 基本的인 關心은 有限性的 超越에 있다. 그러므로 投企的 可能的인 實存을 可能케 하는 將來가 時間性的 優位를 갖고 있는 것이다. 즉 將來가 全時間에 作用하며, 將來의 視野에서 既存와 現在가 喚起되는 것이다.

現存在로의 人間은 日常的으로 非本來的인 樣相을 갖고 있다. 한갓 “世界內的 存在”로서 環境에서 自己를 區分하지 못하는 通稱的인 사람(man)으로서 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無自覺的 狀態가 事實性이다. 오직 人間이 世界 속에 被投되어 있는 狀態를 이룬다. 다음은 現存在는 世界, 또는 『사람』들과의 交渉에서 거기에 支配된다. 現存在는 世界 또는 『사람』과의 交渉에서 不安과 配慮가 생기고, 嫌惡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超躰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現存在는 그 不安을 欺瞞하고 世界 안에 잠기고 만다. 이것을 頽落이라고 한다. 이러한 頽落狀態로부터 自己를 超越하는 것이 『不安』이다. 不安은 現存在를 頽落에서 超脫시킬 수 있으나, 아직 本來的 階段에 達한 것은 아니다. 現存在는 不安에서 다시 先驅的인 決意性を 갖여오지 안하면 안된다. 이리하여 現存在는 實有의 階段에 드러서는 것이다.

實存은 存在 可能에 對한 關心이며, 了解다. 주어진 世界 안에 사는 現存在로서의 存在가 아니고, 앞으로 可能性 있는 存在를 料히 하는 것이 實存이다. 이러한 實存의 存在 可能에의 投企에 依해서만 現存在의 有限性은 超越되는 것이다. 實存의 存在 可能에의 投企에서 나타나는 것이 『死』와 『無』다.

存在 可能은 死에의 可能이며, 無에의 可能이다. 여기서 死와 無는 不可避의이다. 그러므로 實存은 死와 無를 통해서만 事實과 頽落, 即 有限性을 超越할 수 있다. 그러나 死, 또는 無는 存在의 消滅을 意味함은 아니다. 死, 또는 無는 現存在의 終末을 意味한다. 그러나 現存在의 終末은 實存이 自己의 本來를 回復한 것이다. 그러므로 現存在로서 보편 死, 또는 無는 可能的 存在의 端初일 것이며, 根源的인 存在일 것이다. 不安, 또는 先驅的 決意에서 나타나는 死, 또는 無는 存在者가 存在者로서 人間에 있어 나타날 것을 可能케 하는 것이다. 死, 또는 無에 依해서 人間은 全體로서 自己를 超越하게 되는 것이다. 存在를 無의 探問에서 了解하려는 것이 하이데카哲學의 眼目이다.